

#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 분석

김수연\* · 시기자\*\* · 최현주\*\*\*

1997년 말 국가 경제위기는 가정 경제 악화로 이어져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등록을 하는 대학생들의 중도탈락 증가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3년까지 2년제 및 4년제 대학 재학생가운데 학업을 지속해서 완성한 학업지속자와 휴학과 중퇴를 경험한 중도탈락자, 총 684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중도탈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다. 종속변수는 학업 지속여부를 나타내는 이분 범주변수(dichotomous variable)이며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한다. 분석결과, 성, 연령, 거주지와 학교기관 소재지의 일치여부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곧 여대생일수록, 비학령기일수록 그리고 거주지와 대학 소재지가 일치하는 대학생일수록 학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대학이 중도탈락 확률이 높은 남학생, 학령기 학생 그리고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학생 보유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언한다.

## 1.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서 2010년까지 '전통적 학생'인 고교 졸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학은 대학 학령 인구의 감소로 입학자원의 부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는 대학, 특히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의 존립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2003년 입시에서 전체 대학의 70퍼센트 이상이 정원미달 사태를 경험하였다. 이는 대학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 제한된 입학자원을 서로 끌어가기 위해 경쟁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소비적임을 의미한다.

대학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대학간 경쟁력 심화를 현실로 인식하고 확보된 자원의 입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사전에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질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은 입학이 계속적인 등록으로 연결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

---

\* 대원과학대학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BK21 박사후 과정 연구원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다. 곧 단지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학생 보유(student retention)에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에 있다.

교육기관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학생의 휴학, 제적과 같은 중도탈락율과 학생 보유율은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한 가지이다. 대학은 학생을 보유함으로써 전체 교육의 과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즉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개선에서 나아가 궁극적으로 질적 경쟁력 확보까지 연결된다. 중도탈락의 최소화는 어떤 대학에는 좀더 원활한 운영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대학에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국가는 대학이 입학생 감소와 중도탈락 증가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으로써 균형잡힌 노동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나, 체제 및 기관의 특성화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을 뿐 수요자중심의 교육 패러다임 변환 시도는 일부 대학에 그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내적 변화를 통한 개혁이 아니라 급기야 2009년까지 전체 대학 가운데 87개 대학을 통·폐합하는 인위적인 외적 강제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대학들이 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학생을 보유하기 위한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해 고조된 관심과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압력 증가와는 달리 실제로 대학생의 중도탈락율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보유 현황은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의 중도탈락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휴학자나 중퇴자는 누구이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들은 왜 중도탈락하는가? 중도탈락자와 학업지속자(또는 학업완성자)는 각각 어떤 다른 특성이 있는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대학생 가운데 학업지속자와 중도탈락자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체성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대학이 접하고 있는 위기 극복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대학이 학생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학생 특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과 중도탈락 하는 학생은 각각 어떤 특성을 나타내며, 개인의 어떤 특성이 학업지속 또는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학생 보유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앞서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써 학생 보유와 개인 및 대학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작업은 대학의 학생 보유정책 및 전략 구현에 환류됨으로써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대학 및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기초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학(2년제/4년제)에 재학했던 학생을 학업지속자(또는 완성자)와 중도탈락자로 구분하고, 그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우선 한국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에서 학업 지속자와 중도탈락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서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간 그리고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를 세부적인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학업지속자와 중도탈락자(휴학, 중퇴)의 비율을 알아본다.

둘째, 대학 학업지속자와 중도탈락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대학 학업지속자와 중도탈락자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대학생의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다.

다섯째, 대학기관 형태별(2년제/4년제), 성별(여성/남성), 거주지별(서울 및 경기, 대도시, 기타), 학교기관 소재지별(서울 및 경기, 대도시, 기타)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다.

### 3. 용어의 정의

학교를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중도탈락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학업지속(persistence)과 중도탈락(withdrawal)

학업지속은 학생이 특정 기간에 수학(修學)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이며, 중도탈락은 전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학 재학 중에 학생이 개인적 이유 또는 대학기관 이유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정태화, 2002).

#### 나. 대학 기관 이탈(institutional departure)과 고등교육체제 이탈(system departure)

Tinto(1987)는 학교를 떠나는 학생을 고등교육기관을 떠나는 사람들(institutional departure)과 고등교육체제를 떠나는 사람들(system departure)로 구분한다. 고등교육기관을 떠나는 사람들은 대학 재학 중에 개인적 이유 또는 대학기관 이유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withdrawal)나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대학이 정한 수학기간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dropout)를 의미한다. 고등교육기관을 떠나는 사람들 모두가 고등교육체제로부터 떠나는 것은 아니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다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옮기거나(institutional transfer), 고등교육을 일시적으로 멈추기도 한다(stopouts).

#### 다. 학생보유(student retention)와 학생감소(student attrition)

학생보유는 기관의 관점에서 당해 기관이 특정 기간에 목표로 한 학생들이 중도탈락 없이 재적하

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학생감소는 학생보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당해 대학이 특정 기간에 목표로 한 학생들이 재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정태화, 2002).

한국 대학이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변동 사항은 휴학, 퇴학, 제적, 복학, 재입학, 편입학, 전과 등이다. 이 가운데 학교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떠나는 중도탈락 행위는 휴학, 퇴학, 제적이 해당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휴학과 중퇴(퇴학)를 중도탈락 행위로 규정한다..

- 휴학: 재학생이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예: 질병, 병역 의무, 가족 병환 등)가 발생하여 일정 기간 수학을 정지하는 경우
- 퇴학: 사유를 명시하여 자퇴원을 제출하는 경우
- 제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II . 이론적 배경

### 1.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이론적 접근

대학생의 중도탈락, 곧 학교생활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의 틀은 다섯 가지 이론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심리학적 접근, 둘째, 사회학적 접근, 셋째, 경제학적 접근, 넷째, 조직 이론적 접근, 다섯째, 상호작용론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Tinto, 1992).

심리학적 접근은 학생의 중도탈락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강조한다. 이 모델에서 중도탈락은 개인의 결핍과 나약함을 반영하는 것이며, 대학 생활의 요구에 대한 개인적 실패라고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대학 재학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일은 개인의 능력 또는 의지에 달려 있다. 개인의 성격, 동기, 속성 등이 대학 생활의 학문적 도전을 충족하는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접근은 학교를 떠나는 학생과 머무르는 학생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그들간의 성격이 일관되게 다르다거나 ‘중도탈락자적 성격’(dropout personality)이 있음을 제안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낸다(Tinto, 1992).

둘째, 학생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힘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접근은 교육 획득을 광범위한 사회 획득 과정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며, 광범위한 사회 위계에서 개인 및 기관의 위치를 기

술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기관의 위신과 기회 구조 등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학이론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구조기능론적 관점은 학교교육의 결과물을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개인들간 업적주의적 경쟁의 반영으로 간주한다(Sewell & Hauser, 1975; Featherman & Hauser, 1978). 교육 획득의 차이 그리고 학생 중도탈락 패턴에서의 차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보다는 개인의 기술과 능력 차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학생의 학업능력, 곧 고등학교 성적 및 대학 학업성적이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동기 요인으로서 교육포부와 직업포부 수준, 부모가 갖고 있는 교육기대수준과 부모가 자녀교육에 개입하는 정도 및 부모의 자녀교육 형태도 학생들의 중도 탈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stin, 1991a; Astin, 1991b; Tinto, 1987).

갈등론자들(Karabel, 1972; Pincus, 1980; Brint & Karabel, 1989)에 의하면, 고등교육기관은 사회적·교육적 지배 엘리트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이 관점에서 학생의 중도탈락은 소외된 개인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교육적·사회적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작용하는 더 큰 사회계층화 과정의 일부분이다. 곧 중도탈락의 주원인이 개인의 심리적 결핍이나 학업능력 부족에 있기보다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있다(Karabel, 1972; Pincus, 1980). 이 접근에 의하면, 자퇴는 사회의 사회경제적·정치적·문화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가피한 구조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의 중도탈락은 서로 다른 개인들과 기관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반복되는 중도탈락 방식과 이것이 어떻게 사회불평등을 강화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배경, 인종, 성 등은 특히 학생 성공의 중요한 예언 요인이다. 이 접근은 특히 2년제 대학의 높은 중도탈락율이 특정 집단에게 교육적·사회적 기회를 제한하려는 교육 조직의 의도적 바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학적 접근은 학생의 학교 생활 유지 또는 중도탈락 과정에서 기관의 힘보다는 외부의 영향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유사한 위신의 기관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의 학교 생활 유지 또는 중도탈락에 작용하는 기관 특유의 다양한 특징과 형태에 무감각하다.

셋째, 경제학적 접근(Jensen, 1981)은 학생이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최소적인 경제적 자원을 투자하는 방법으로서 비용과 효과의 무게를 재는 다른 경제적 결정과 다르지 않다는 견해를 공유한다. 따라서 개인이 대학교육을 계속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은 경제적 힘을 반영한다. 이 접근은 특히 개인이 비용-효과에 대한 비중을 측정하는 것은 주어진 기관 환경 내에서 개인이 겪은 경험을 반영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기관 특유의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한다.

학생이 학교를 계속 다니는데 있어 재정과 재정적 지원은 중요하다(Tinto, 1987; 1992 재인용). 재정여건 요인 가운데 부모로부터 재정적 원조를 받고 있는 정도도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다. 특히 대학생은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하므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부모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가는 그들이 대학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을 계속하는데 있어서 부모들로부터 재정보조를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구 소득은 중도탈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중요한 변인으로써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동안 전일제 또는 시간제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장학금과 학교

내 근로 형태를 통한 재정적 지원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강경석, 1994).

경제학적 접근은 기관 수준보다는 체제 수준에서 학생의 유지 또는 탈락 분석에 더 적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 형태가 직접적 수여로부터 대부로 변화하거나,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조건의 변화 등은 학생들이 대학 학위를 완성할 수 있는 총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Tinto, 1992). 예를 들어, 국가의 경제적 위기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가정경제의 악화를 가져온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교육을 완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학적 논의는 경제적 요인만을 측정하고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내외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비금전적 동인에는 관심이 없는 한계를 갖는다.

넷째, 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조직론적 접근은 교육기관의 조직 및 형식적 구조, 자원, 유대감 형태가 학생의 유지 또는 탈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곧 어떻게 다른 조직 구조들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학생들 사이에서 상이한 결과를 갖고 오는가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은 어떻게 조직 특성이 궁극적으로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조직 효과를 학생 행위로 전이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학생 하위 문화와 교수-학생 상호작용 형태와 같은 매개 요인을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적 접근은 다른 형태의 고등교육 조직에서 학생의 유지 또는 탈락 비율 비교 연구에는 적합할지라도, 조직 내부의 학생 행위 변화 연구에는 덜 유용하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상호작용론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다.

다섯째, 상호작용론적 접근은 1990년대 초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관점이었다. 상호작용론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 조직뿐만 아니라 학생 동료집단과 학생 하위문화와 같은 비공식 사회 조직 그리고 학생·교수·직원 간 개인적 상호작용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생의 중도탈락은 기관 내에서 학생의 경험과 이에 부여하는 해석과 동시에 환경과 개인사이 역동적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한 가지 사건의 해석은 반드시 개인이 다른 개인들 그리고 더 넓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역동적으로 반응한 결과물이다.

학생의 중도탈락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관점은 역할 사회화와 ‘개인-역할 조화’(person-role fit) 개념을 사용한다. 학생이 자신의 역할에 사회화하는 작업은 학교 생활 유지 과정에 중요하다. 학생들은 역할에 보다 밀접하게 동화될수록 학교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반대로 인식의 분리를 경험할수록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관점은 Spady(1970)와 Tinto(1975, 1987) 모델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이론적 기원은 Emile Durkheim--특히 사회적 공동사회와 개인 자살에 관한 연구(1951)--와 네덜란드 인류학자 Arnold Van Gennep--공동사회 구성원 의식(community membership, 1960)--의 연구에서 유래한다(Tinto, 1992 재인용). Tinto 모델은 대학이 마치 인간 공동사회와 같으며, 학교에 머무르거나 떠나는 과정은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같다고 주장한다. 학교를 떠나려는 학생의 결정은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곧 학문적·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대학 세계를 구성하는 개인의 사회적 그리고 지적 경험에 의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학교를 떠나려는 결정은 학생의 학위 수행 목표에 대

한 헌신도를 반영하고 또한 어떻게 개인이 주위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가에 관련된 개인적 특성을 나타낸다. 만일 개인의 능력이 최소한의 학문적 수준만 충족한다면, 교수 및 동료와의 개인적 상호작용은 구성원이 의식을 획득하고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기본 동력으로 간주된다(Tinto, 1987, 1992; Munro, 1981; Pascarella & Chapman, 1983; Pascarella, Terenzini & Wolfle, 1986; Pascarella & Terenzini, 1991).

개인이 기관의 공식적·비공식적 학문 체제 및 사회 체제에 대해 만족할 경우, 이는 체제에 대한 더 많은 통합으로 이끈다. 통합은 개인이 기관에서 동료 및 교수와 태도 및 가치를 공유하는 정도, 그리고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는 하위집단에서 구성원에게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이 부정적 상호작용과 경험을 하게 되면 통합은 감소되고 학문·사회 체제와 멀어지며, 개인의 주변화가 촉진되다가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Pascarella & Terenzini, 1991; Penn, 1999; Raush, 2002).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노동에 초점을 맞춘 자료이기 때문에, 대학재학생 특히 그들의 중도탈락에 관한 이론들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참고로 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학적 접근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는 개인의 귀속적 배경 변수로써 성, 연령, 거주지, 거주지와 기관소재지의 일치여부, 부모변수로써 부모교육, 부모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 기관 변수, 기관 변수로써 기관 형태, 기관 소재지 등을 변수로써 사용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04a).

## 2. 한국 사회변화와 대학생의 중도탈락

대학생의 중도탈락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의 휴학을 통계를 살펴보면, 휴학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현재 4년제 대학의 휴학율은 30.7%, 2년제 전문대학의 휴학율은 35.7%로써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 보다 5%포인트 더 높은 중도탈락율을 나타내고 있다(교육통계연보, 1997, 1998, 1999, 2000, 2001). 이러한 높은 수치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더 심화된 현상으로 파악된다. 2년제 전문대학의 휴학율은 1997년 29.5%, 1998년 30.1%, 1999년 33.1%, 그리고 2000년 34.3%로 1997년에 비해 약 5% 포인트 증가하였다. 4년제 대학의 경우, 1997년 26.4%, 1998년 27.8%, 1999년, 30.5%, 그리고 2000년 30.5%로 1997년에 비해 약 4% 포인트 증가하였다. 교육통계에 의하면, 2년제 대학이 휴학을 증가폭이 더욱 높아서 학생 보유 문제가 훨씬 더 시급함을 할 수 있다.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제적생 비율을 살펴보면, 제적율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2년제와 4년제 대학 간 차이도 더욱 심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현재 전문대학의 제적생 비율은 5.8%, 4년제 대학은 4.3%로써 1.5%포인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IMF 금융지원이라는 국가 경제위기가 온 1997년 말 이후 1998년 2년제 전문대학 제적률 0.9%포인트, 4년제 대학 0.5%포인트 증가, 1999년 전문대학 0.7%포인트, 4년제 대학 0.9%포인트 증가, 2000년 전문대학 0.1%포인트 증가, 4년제 대학 0.3%포인트 감소, 2001년 전문대학 0.7%포인트, 4년제 대학 0.2%포인트 증가, 2002년 전문대학 0.5%포인트, 4년제 대학 0.6%포인트 증가하였다. 전문대학생의 제적률은 꾸준히 증가해서

2002년 제적율은 1997년 제적율의 2배가 되었으며, 4년제 대학은 2년제 대학보다는 완만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관간의 제적률 차이를 살펴보면, 1997년 2년제 전문대학 제적률이 4년제보다 0.5% 포인트 높았으나 2002년에는 1.5%포인트로써, 그 격차가 3배나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의 제적률은 4년제 대학의 그것보다 항상 높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표 1>). 이 통계는 대학 기관의 차별적 특성이 대학생의 제적에도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1>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제적생 비율

연도	구분	제적율(%)		증감률(%point)		A-B (%point)
		2년제 전문대학 (A)	4년제 대학 (B)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1997		2.9	2.4			0.5
1998		3.8	2.9	+0.9	+0.5	0.9
1999		4.5	3.8	+0.7	+0.9	0.7
2000		4.6	3.5	+0.1	-0.3	1.1
2001		5.3	3.7	+0.7	+0.2	1.6
2002		5.8	4.3	+0.5	+0.6	1.5

자료 : 『교육통계연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대학생의 중도탈락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정원정책이외에 경제 변화,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교육 기관 및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 및 정체성, 대학의 서열화,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특성 등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변화 및 교육정책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1997년 국가 경제 위기는 크게 노동시장의 침체와 가정경제의 악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학생의 등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98년과 1999년 대학생의 제적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던 2000년경에는 둔화하였다. 그러나 다시 국가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제적율 또한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우선 국가의 경제적 위기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노동시장이 침체될 때 특히 1, 2년 이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전문대학생들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Freeman, 1976). 또한 국가 경제 위기는 대부분의 가정경제를 악화시켰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을 계속하는데 있어서 부모들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으므로, 이 요인이 휴학 및 중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2년제 전문대학생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다는 연구 결과(Karabel, 1972; Pincus, 1980)를 참고한다면, 그들의 중도탈락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둘째,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그리고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간 사회적 대우의 격차가 지방의 4년제 대학생이나 2년제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을 야기할 수 있다. 우선 학력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졸업자의 임금 수준이 대학 졸업자보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가깝다. <표 2>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설정하였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의 임금 수준은



1998년 106.6(대졸자 149), 1999년 103.5(대졸자 151.7) 2000년 103.4(대졸자 150.9), 2001년 103.6(대졸자 152.3)으로 대학졸업자와의 심한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이정표외, 2003).

이와 같은 학력간 심한 임금 격차는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4년제 대학을 선호하여 편입학하려는 경향이나 심지어 전문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하려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직업교육의 경시 풍조는 물론, 기업의 학력간 임금 격차로 인해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중도탈락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학력별 임금 격차\*

(단위 : 고졸임금수준=100)

구분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1998년	100.0	106.6	149.0
1999년	100.0	103.5	151.7
2000년	100.0	103.4	150.9
2001년	100.0	103.6	152.3

주 : \* 학력별 임금격차=(학력별 평균임금/고졸학력자의 평균임금)×100.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지표.

<표 3> 지방대 및 수도권 대학 출신 근로조건 비교\*

(단위 : %)

구분	지방대 대학 출신	수도권 대학 출신
고용유지율(취업→취업)	53.0	45.3
실업유지율(미취업→미취업)	27.5	29.9
임금에 대한 만족도	25.5	20.9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	42.3	39.1
월평균 임금	1,284,000원	1,526,000원
평균 주당 근로시간	48.9시간	48.3시간
실직률	8.0	5.7

주 : \* 2002년도 15~29세 6,000명 대상 조사(“청년패널조사: 중앙고용정보원” 분석)  
 자료 :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성과분석, 2003, 한국개발연구원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2004). 『인적자원정책수립과 홍보를 위한 주요 통계 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재인용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간 사회적 대우의 격차 또한 지방의 4년제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야기할 수 있다.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의 근로조건을 비교한 결과(<표 3>), 지방대학 출신자의 월평균 임금은 1,284,000원이고, 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월평균 임금은 1,526,000원이다. 그리고 실직율도 지방대학 출신이 8.0%, 수도권 대학 출신자는 5.7%이다(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2004). 지방대학과 수도권 출신자간 근로조건차이는 지방대학 재학생의 중도탈락을 촉진시키고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이나 재입학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과 4년제 대학 편입학 모집정원 확대 정책이 대학생의 중도탈락 문제

를 전면으로 이끌어냈다. 1997년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정원 결정을 개별 대학에 맡기는 교육여건 연동제 실시 등으로 우수 대학과 수도권 야간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이 증원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차별화정책, 역할분담이 아닌 위계적 계층화를 통한 정부의 전문대학 예산지원 차별 등으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특히 지방 전문대학은 신입생이 미달하고 재학생이 빠져나가는 사태가 속출하였다(이정표외, 2003). 여기에 4년제 대학 편입학 모집정원 확대 정책과 가정 경제위기로 인한 휴학생 및 자퇴생이 증가하면서 이들 낮은 위계의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사회적 인식이 높고 취업전망이 밝은 수도권 대학이나 상위 대학으로 연쇄적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장수영외, 1997; 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 1998). 이 과정에서 지방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은 유입되는 학생이 거의 없이 유출학생이 급증함으로써 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문대학은 학생 유출로 인하여 생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대학생의 중도탈락이 야기하는 노동시장, 전문대학 및 개인의 위기는 무엇인가?

첫째, 노동시장 측면에서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한다. 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은 인력 양성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확정된 결과라고 보았을 때, 대부분 노동시장으로 곧바로 진입할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은 인력 공급의 차질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둘째, 대학 기관 운영측면에서 대학생의 자퇴는 학교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문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은 68.4%, 4년제 대학의 그것은 61.8%이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하여 모든 교육영역의 여건이 열악한 상태이며, 특히 교육재정이 그러하다. 높은 중도탈락율은 대학의 존폐까지 위협하게 된다.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질적 수준이 높은 우수한 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은 학생 자원을 확보하고 보유하기 어렵다. 대학의 학생 수 감소는 질적 내실화를 저해하는 기본 요소이다. 대학의 학생 보유문제는 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라는 연결고리 속에서 악순환을 거듭할 위험에 처해 있다.

셋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대학을 떠난다는 것은 개인적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중도탈락은 사회적·지적 성숙을 이루는 발견 과정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Tinto, 1987: 3).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중도탈락은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로의 진입기회를 상실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늦게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학생이 중도탈락 이후 복학할 기회를 잃게 될 경우에 이는 곧바로 자신의 학력으로 연결되며, 개인이 교육받은 연한은 직업 획득 및 소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대부분 직업 획득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보상의 지연을 가져온다. 특히 다른 학교급보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자퇴생은 회수율에 있어 심각한 손해를 본다 고 한다(Freeman, 1976; 한대동, 1992). 다시 말해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대학생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보다 사회경제적 보상이 낮은 직업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선행 연구(김수연, 1997; 김수연, 1998a, 1998b, 2002, 2004a, 2004b)에 의하면, 전문대학생의 경우에 4년제 대학으로의 입학 및 편입학 계획이 중도탈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생들에게 왜 중도탈락하는 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첫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이 4년제 대학으로의 입학 또는 편입학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서였다. 이 응답을 통해서 중도탈락이 갖는 개인, 교육기관, 노동시장측면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문대학생 개인에게 중도탈락은, 첫 번째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교육체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재학중인 기관을 떠나 다른 기관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곧 자퇴를 계획하는 학생은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지는 않으며, 중도탈락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낙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목표 성취를 향한 매우 긍정적인 단계라고 인식한다. 자퇴생 대부분은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 진학을 위한 임시 정거장 또는 군입대를 유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할 뿐이다.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서라는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시장 측면에서 자퇴는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반영한 행위이다. 한국 사회는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따른 입직 및 승진, 임금의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다(이정표외, 2003). 전문대학 졸업장은 4년제 대학 학위에 비하여 고용주에게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는 긍정적 인상을 심어 주지 못한다. 더구나 고용주들은 고용과정에서 직무수행에 적합한 교육수준을 갖춘 자를 선호하기보다는 높은 학력 소지자를 선발하기도 한다(Dore, 1976). 실제로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의 학력일치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대졸업자의 학력일치 비율은 19.4%로써 가장 작은 반면, 4년제 대학의 그것은 47.9%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격차는 노동생산성의 차이에 대한 단순한 보상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위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대학생들은 학력에 따른 차별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받은 결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전문대학 교육 성취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있다(Clark, 1960; Alexander, Cook & McDill, 1978; Ayalon & Yuchtman-Yaar, 1989; McClelland, 1990; Hanson, 1994). 곧 한국에서 전문대학생들은 2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이류', '삼류'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 전문대학생들은 마음 속에 항상 열등감을 갖고 있으며, 부정적 자아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써 2년제 대학을 자퇴하고 4년제 대학을 선택하게 된다. 선행 연구의 결과(김수연, 1997; 김수연, 1998a, 1998b, 2002, 2004a, 2004b), 전문대학생의 진로계획은 자퇴에 작용하는 유의한 변수이며, 4년제 대학 진학 계획과 자퇴계획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이를 증명한다.

대학은 어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등록을 하고 어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종단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등록생과 중도탈락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등록생들의 니즈를 분석하는 일은 학생 보유를 위한 대학의 다양한 대응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에 전제 조건이다. 대학은 입학한 학생들이 인적·학문적·물리적 교육환경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재고해야 하며, 대응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한국 대학의 학생 보유 프로그램 및 전략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국외 대학의 학생 보유 프로그램 및 전략과 비교하는 작업은,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대학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 변동사항 조사조차도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 대학에서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 변동 사항은 휴학, 퇴학, 제적, 복학, 재입학, 편입학, 전과 등이다. 이 가운데 휴학은 교육기관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행위이고, 영원히 떠나는 행위는 퇴학 및 제적, 타대학으로의 입학과 편입학 등이 해당한다. 학교를 완전히 떠나는 학생들은 대학 및 교육부의 재적생(在籍生) 변동사항 조사에서 제적생(除籍生)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매년 제적생의 유형을 미등록·미

복학 및 자퇴, 학사경고, 유급, 학생활동, 중도수료자, 성행불량자 등으로 유형화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2000;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0). 이 조사는 각 대학의 조사 보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학교 운영 및 국가 전문대학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문제는 학생 변동의 수량적 조사에는 충실할지 모르나 변동사유의 정성적 측면에는 관심이 미흡한 부분에 있다. 교육부가 대학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문서에서 제적생 유형 가운데 자발적 탈락인 미등록·미복학 및 자퇴의 사유는 가사, 결핵, 기타, 빈곤, 질병, 취직으로 구분되어 왔다. 이 분류는 자발적 중도탈락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편협하고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탈락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학생들은 자신이 중도탈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기 꺼려하며,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중도탈락 사유는 대부분 가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사는 중도탈락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 큰 의미가 없다.

한국의 대학은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층의 요구를 수렴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다양한 수요층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가? 우선 어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등록을 하고 어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업지속자와 중도탈락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리고 나서 휴학 및 중퇴 위기에 놓인 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차년(1998)에서 6차년(2003)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학력이 2년제와 4년제 대학인 사람 가운데 재학중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적하였다. 이들 가운데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68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집단은 크게 두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학업을 지속하거나 완성(졸업)한 자, 두 번째 집단은 대학을 다니면서 휴학을 한번이라도 경험했거나 중퇴한 자를 중도탈락자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노동패널 1차년(1998년)자료부터 6차년(2003년)자료까지에서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재학 및 휴학하고 있던 학생 가운데 2003년까지 학업을 지속하여 완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1차년도 자료(P01)에서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재학 및 휴학하고 있던 학생, 2차년도(P02)와 3차년도(P03)는 2년제, 4년제 대학 1학년에 입학한 학생, 4차년도(P04)와 5차년도(P05)에서는 2년제 대학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차년도 신규용(N02)과 3차년도 신규용(N03)에서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재학 및 휴학하고 있던 학생, 4차년도 신규용(N04)에서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재학 및 휴학하고 있던 학생 가운데 4년제 대학 1학년을 제외하였으며, 5차년도 신규용(N05)에서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재학 및 휴학하고 있던 학생 가운데 4년제 대학 1, 2학년을 제외하였으며,

6차년도 신규용(N06)에서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에 재학 및 휴학하고 있던 학생가운데 학업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4학년과 2년제 2학년만 포함하였다.

## 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업지속 여부를 나타내는 이분 범주변수(dichotomous variable)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한다.

## 3. 연구 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여부이다. 독립변수는 개인변수, 부모변수와 기관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변수는 성, 연령, 거주지, 거주지와 학교소재지의 일치 여부이며, 부모변수는 부모 교육수준, 부모 직업과 가구 소득수준이다. 기관변수는 재학하고 있는 대학기관의 형태(2년제/4년제), 기관 소재지를 포함시켰다(<표 4>).

<표 4>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종속변수	학업지속자와 중도탈락자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6차년도 자료 대학 재학생)		
독립변수	개인변수	성	남(1), 여(2)
		연령	학령기(만17세~20세)(1) 비학령기(만21세 이상)(2)
		거주지	서울 및 경기(3), 대도시(2), 기타(1)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 일치 여부	불일치(1), 일치(2)
	부모변수	부모교육수준	무학, 초등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 2년제대학, 4년제대학(4) 대학원 석사, 박사(5)
		부모직업	단순노무직 근로자(1) 장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2)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3)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4) 서비스근로자 및 판매근로자(5) 사무직원(6) 기술공 및 준전문가(7) 전문가(8)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9)
		가구 소득수준	가구전체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6년 평균 300만원미만(1) 300만원이상~600만원미만(2) 600만원이상~900만원미만(3) 900이상~1,500만원미만(4) 1,500만원이상(5)
	기관변수	기관형태	2년제, 전문대학(1), 4년제 대학(2)
		기관소재지	서울 및 경기(3), 대도시(2), 기타(1)

중속변수는 이 연구 대상들이 2003년까지 학업을 지속 또는 중도탈락했느냐에 따라서 학업지속자와 중도탈락자로 구분하였다. 학업지속자는 대학 재학기간동안 휴학이나 중퇴없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완성한 사람이며, 중도탈락자는 휴학을 경험한 자와 중퇴자를 의미한다. 학력 이수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졸업과 재학이 지속자로, 중퇴와 휴학중이 중도탈락자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사례별로 추적을 해서 학업을 지속해서 완성한 학생은 지속자로, 중간에 휴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중도탈락자로 분류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2004a, 2004b). 2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옮긴 경우, 또 4년제 대학에서 2년제 대학으로 옮긴 경우는 중도탈락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비지속자로 분류하였으며, 초기에 재학하였던 기관을 중도탈락 학력으로 정하였다. 비지속자 가운데 남자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라는 필수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도탈락 남학생가운데 휴학이유에 군복무로 응답한 자(P01, N02, N03) 총 124명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P02~06, N04~06 조사에서는 휴학이유를 묻는 문항이 없어서 남학생 휴학자가운데 군복무 휴학자를 분류하기가 어려웠다.

독립변수는 개인변수, 부모변수와 기관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개인변수는 성, 연령, 거주지와 학교기관 소재지의 일치여부이다. 성은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된다. 연령은 범주화하지 않은 연속변수로써, 1학년 입학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령 변수는 학령기와 비학령기로 구분하였는데, 학령기는 만 17세부터 만 20세까지, 비학령기는 만 21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다. 거주지는 서울 및 경기, 대도시(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기타(경기도를 제외한 도 및 북한, 외국)로 범주화하여 서열변수화하였다. 경기도는 대부분 서울권역에 포함되어, 서울과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명칭하는 것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거주지와 학교소재지의 일치 여부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 일치로,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일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동거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비동거에 답하고 비동거 이유를 학업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불일치로 처리하였다. 거주지와 학교소재지의 일치 여부를 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생수 대비 대학입학정원을 보면, 수도권은 79.6%, 비수도권은 131.4%로서 대학생들의 거주지와 학교소재지의 불일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2004). 따라서 거주지와 학교소재지의 일치 여부는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독립변수에서 범주변인인 성, 연령, 거주지와 소재지의 일치여부, 기관형태의 경우는 여학생일수록, 비학령기일수록, 거주지와 학교기관소재지가 일치할수록, 4년제 대학생일수록 학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부모변수는 부모 교육수준, 부모 직업과 가구 소득수준이다. 부모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보통학교), 중학교(공민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사범학교), 대학/대학교, 대학원이상으로 구분하여 서열변수로 처리하였다. 부모직업변수는 14세 무렵 경제활동상태가운데 직명/직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직업오픈코드의 구코드 대분류에 따라 서열변수로 처리하였다. 가구소득수준은 가구전체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후 6년의 평균을 변수로 잡았으며, 차이 분석 시에는 범주(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기관변수는 재학하고 있는 대학기관의 형태(2년제/4년제), 기관 소재지로 구성하였다. 대학기관의

형태는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으로 구분하였다. 학교기관 소재지는 서울 및 경기, 대도시(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기타(경기도를 제외한 도 및 북한, 외국)로 서열의 성격을 지니도록 범주화하였다. 서울과 경기도에는 전국 4년제 대학 199개 대학 가운데 66개 대학이, 전국 전문대학 158개 대학 가운데 47개교가 있다(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2003).

#### 4.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중도탈락 연구에 따르면, 중도탈락은 학생 개인 특성과 대학기관 특성, 그리고 양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Tinto, 1992 재인용). 개인 특성 가운데 연령, 성, 가정배경과 같은 귀속적 배경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요인도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제한상 이 연구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배경, 대학기관의 교육환경적 특성, 그리고 양요인간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변수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수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무엇보다 학생의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내부의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보유 대책은 효과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중도탈락자의 범주에는 휴학자와 중퇴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휴학자와는 달리 중퇴자는 학업을 중단한 후 학교에 복학하지 않는 영구적 손실 자원이 되므로, 두 가지의 성격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중도탈락 대상 402명 가운데 중퇴자 사례수는 22명으로, 전체 중도탈락자 가운데 약 5%의 적은 비율을 나타내므로 이들을 따로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퇴자도 중도탈락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학업지속과 중도탈락의 연구에서 중도탈락 학년과 이유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는 1차년도, 2·3차년도 신규용과 3차년도 청년층 자료에서 휴학시기 및 종료시기를 묻는 문항이 있다. 그러나 학년 정보에 대한 결측치가 많기 때문에 휴학 시작시기와 종료시기를 추적해서 중도탈락 학년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휴학이유를 묻은 조사는 1차년도와 2·3차년도 신규용 자료인데, 군복무 휴학이 9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군복무이외 나머지 휴학이유의 보기는 취업, 어학연수/해외여행, 여타 개인사정으로, 편입학준비,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이 보기에 대한 응답 역시 응답 사례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의미 있는 해석을 이끌어 내기 어려웠다.

넷째,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대학기관 요인 가운데 산출할 수 있는 변수 가운데 한 가지가 전공계열로써 이 연구의 초기 관심 변수이다. 전공계열에 대한 문항의 경우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는 계열이기보다는 구체적 학과분류이어서 사용하기가 어렵고, 4차년도부터 10가지 전공계열에 대한 보기가 제시되었다. 응답률이 가장 높은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나, 결측치가 약 70%로 나타나 전공계열 변수는 사용할 수 없었다.

## IV. 연구결과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부모 요인 및 기관 요인에 따른 학업지속자와 중도탈락자의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고, 각 독립변수의 범주에 따른 학업지속자와 중도탈락자의 비율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독립변수 빈도분포 및 집단 차이

변수구분		학업지속자	중도탈락자	검정통계량 $\chi^2(p)$
개인변수				
성	남자	66(30.3)	152(69.7)	15.842 (p=.000)
	여자	216(46.4)	250(53.6)	
	합계	282(41.2)	402(58.8)	
연령	학령기	204(40.0)	306(60.0)	2.361 (p=.124)
	비학령기	59(47.6)	65(52.4)	
	합계	263(41.5)	371(58.5)	
거주지	서울, 경기	72(41.6)	101(58.4)	6.056 (p=.048)
	대도시	116(46.6)	133(53.4)	
	기타	94(35.9)	168(64.1)	
	합계	282(41.2)	402(58.8)	
거주지, 학교소재지 일치여부	일치	96(36.5)	167(63.5)	7.400 (p=.007)
	불일치	182(47.3)	203(52.7)	
	합계	278(42.9)	370(57.1)	
부모변수				
교육수준	무학, 초졸	84(44.7)	104(55.3)	6.394 (p=.172)
	중졸	60(44.1)	76(55.9)	
	고졸	82(35.5)	149(64.5)	
	대졸	48(46.6)	55(53.4)	
	대학원 졸	5(31.3)	11(68.8)	
	합계	279(41.4)	395(58.6)	
부모직업	단순노무직근로자	17(41.5)	24(58.5)	3.909 (p=.865)
	장치, 기계조작원	28(40.6)	41(59.4)	
	기능원,기능근로자	36(46.2)	42(53.8)	
	농, 어업근로자	72(40.9)	104(59.1)	
	서비스근로자	46(35.7)	83(64.3)	
	사무직원	32(40.5)	47(59.5)	
	기술공, 준전문가	22(46.8)	25(53.2)	
	전문가	21(47.7)	23(52.3)	
	고위임직원	5(45.5)	6(54.5)	
	합계	279(41.4)	395(58.6)	



변수구분		학업지속자	중도탈락자	검정통계량 $\chi^2(p)$
소득수준	300미만	48(39.3)	74(60.7)	0.494 (p=.974)
	300이상 600미만	72(42.1)	99(57.9)	
	600이상 900미만	42(43.8)	54(56.3)	
	900이상 1500미만	39(41.9)	54(58.1)	
	1500이상	30(40.5)	44(59.5)	
	합계	231(41.5)	325(58.5)	
기관변수				
기관형태	2년제	78(41.5)	110(58.5)	0.097 (p=.932)
	4년제	204(41.1)	292(58.9)	
	합계	282(41.2)	402(58.8)	
학교소재지	서울, 경기	72(37.9)	118(62.1)	8.309 (p=.016)
	대도시	107(51.2)	102(48.8)	
	기타	99(40.6)	145(59.4)	
	합계	278(43.2)	365(56.8)	

개인변수 중에서는 성, 거주지, 거주지와 학교소재지의 일치여부에 따라 중도탈락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관변수 중에서는 학교소재지에 따라 중도탈락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학생의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69.7%, 여학생의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53.6%로서 유의수준 0.05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의 비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hi^2=15.842$ ,  $p=.000$ ). 거주지 변수에서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64.1%,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53.4%,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58.4%로서 거주지에 따라 중도탈락자의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6.056$ ,  $p=.048$ ). 기관변수인 학교소재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59.4%,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62.1%로서 학교 소재지에 따라라도 학생들의 중도탈락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hi^2=8.309$ ,  $p=.016$ ). 또한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일치하는 학생들의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52.7%,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의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63.5%로서,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간의 일치여부에 따라라도 학생들의 중도탈락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7.400$ ,  $p=.007$ ). 한편 학령기와 비학령기로 구분한 연령 변수나, 전문대인지 4년제 대학인지의 학교유형을 의미하는 기관형태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모관련변수인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가정의 소득수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생들의 학업지속여부와 관련될 수 있는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및 독립변수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학업 지속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전체)

	B	S.E	Wald	Exp(B)
성	0.724	0.229	9.984**	2.063
연령	0.676	0.246	7.567**	1.967
거주지	-0.330	0.176	3.508	0.719
소재일치	0.422	0.198	4.534*	1.525
교육수준	-0.038	0.096	0.158	0.962
부모직업	0.030	0.057	0.278	1.030
소득수준	0.054	0.074	0.519	1.055
기관형태	-0.219	0.221	0.987	0.803
학교소재지	0.131	0.167	0.615	1.140
상수	-1.259	1.569	0.644	0.284

주 : \* p<0.05, \*\* p<0.01.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중 성(Wald=9.984, p<0.01)과 연령(Wald=7.567, p<0.01) 및 거주지와 학교소재지의 일치여부(Wald=4.534, p<0.05)가 학생들의 학업지속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회귀계수에 따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연령이 높은 사람보다는 연령이 낮은 사람이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일치하는 사람보다는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중도탈락할 확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업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학업 지속여부에 대한 성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자				여자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연령	1.736	0.416	17.440***	5.677	-.056	0.327	0.030	0.945
거주지	-.388	0.338	1.317	0.679	-.361	0.219	2.720	0.697
소재일치	1.099	0.422	6.786**	3.002	0.181	0.233	0.601	1.198
교육수준	-.023	0.192	0.014	0.977	-.048	0.116	0.167	0.953
부모직업	0.186	0.123	2.307	1.205	0.001	0.066	0.000	1.001
소득수준	0.030	0.156	0.037	1.030	0.050	0.087	0.337	1.052
기관형태	0.478	0.464	1.061	1.613	-.395	0.265	2.221	0.674
학교소재지	-0.042	0.321	0.017	0.959	0.193	0.207	0.863	1.213
상수	-8.038	3.463	5.388	0.000	2.709	1.831	2.189	15.007

주 : \*\* p<0.01, \*\*\* p<0.001.

남학생의 학업지속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Wald=17.440, p<0.001) 및 거주지와 학교소재지의 일치여부(Wald=6.786, p<0.01)로 분석되었으며, 연령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에 의하면 남학생들 역시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을수록 중도탈락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중 여학생들의 학업지속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

학생들의 학업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주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학업 지속여부에 대한 거주지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서울/경기)

	서울/경기				대도시				기타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성	-0.466	1.514	0.095	0.628	0.149	0.437	0.117	1.161	2.792	1.234	5.120*	16.316
연령	0.112	1.260	0.008	1.118	0.810	0.440	3.385	2.247	-0.011	1.115	0.000	0.989
소재일치	0.082	0.981	0.007	1.086	0.447	0.430	1.083	1.564	1.487	1.096	1.840	4.423
교육수준	0.080	0.550	0.021	1.083	0.113	0.171	0.435	1.120	-0.576	0.380	2.300	0.562
부모직업	0.118	0.391	0.091	1.125	-0.083	0.112	0.551	0.920	-0.001	0.195	0.000	0.999
소득수준	-0.206	0.487	0.180	0.814	0.149	0.148	1.017	1.161	0.219	0.259	0.717	1.245
기관형태	-1.032	1.198	0.741	0.356	-1.251	0.567	4.872*	0.286	0.019	0.728	0.001	1.019
학교소재지	-.243	0.741	0.107	0.785	0.094	0.355	0.070	1.098	-0.421	1.352	0.097	0.656
상수	7.591	9.328	0.662	1980.408	5.514	4.270	1.668	248.023	-6.834	6.121	1.247	0.001

주 : \* p<0.05.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중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지속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의 형태에 따라 학업지속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Wald=4.873, p<0.05),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에 따라 학업지속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Wald=5.120, p<0.05). 즉,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2년제 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일수록 중도탈락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도탈락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업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형태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학업 지속여부에 대한 기관형태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성	1.755	0.521	11.340***	5.785	0.379	0.268	2.001	1.461
연령	1.786	0.579	9.503**	5.965	0.361	0.287	1.583	1.435
거주지	-0.592	0.464	1.625	0.553	-0.310	0.196	2.489	0.734
소재일치	0.088	0.422	0.044	1.092	0.600	0.232	6.692**	1.823
교육수준	-0.271	0.226	1.434	0.763	-0.007	0.109	0.004	0.993
부모직업	0.064	0.118	0.294	1.066	0.027	0.066	0.162	1.027
소득수준	0.052	0.176	0.088	1.053	0.033	0.083	0.153	1.033
학교소재지	0.610	0.446	1.870	1.840	0.029	0.185	0.025	1.030
상수	-5.177	1.756	8.689	0.006	-1.930	0.875	4.861	0.145

주 : \*\* p<0.01, \*\*\* p<0.001.

2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성(Wald=11.340, p<0.001)과 연령(Wald=9.503, p<0.01)에 따라 학업지속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에 따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계수에 따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연령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중도탈락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거주지와 학교소재지의

일치여부가 학생들의 학업지속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Wald=6.692,  $p<0.01$ ),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일수록 학업을 지속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교소재지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학업 지속여부에 대한 학교소재지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서울/경기				대도시				기타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성	0.691	0.378	3.345	1.996	0.810	0.447	3.281	2.249	0.608	0.412	2.173	1.836
연령	1.095	0.394	7.737**	2.988	0.154	0.486	0.101	1.167	0.754	0.457	2.720	2.126
거주지	-0.331	0.347	0.910	0.718	-0.581	0.448	1.682	0.560	-0.148	0.269	0.303	0.863
소재일치	0.268	0.345	0.602	1.307	0.384	0.382	1.011	1.468	0.597	0.385	2.403	1.816
교육수준	0.173	0.150	1.322	1.189	-0.178	0.177	1.014	0.837	-0.281	0.199	2.004	0.755
부모직업	-0.028	0.094	0.088	0.972	0.065	0.098	0.440	1.067	0.118	0.113	1.080	1.125
소득수준	0.132	0.125	1.100	1.141	-0.075	0.135	0.311	0.927	0.159	0.139	1.315	1.173
기관형태	-0.800	0.403	3.938*	0.449	0.105	0.378	0.077	1.111	-0.135	0.394	0.118	0.873
상수	2.224	2.856	0.606	9.245	-1.362	2.929	0.216	0.256	-2.355	2.732	0.743	0.095

주 : \*  $p<0.05$ , \*\*  $p<0.01$ .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은 연령(Wald=7.737,  $p<0.001$ )과 대학형태(Wald=3.938,  $p<0.05$ )에 따라 학업지속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이 낮은 사람일수록,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일수록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와 기타 지역 학생들의 학업지속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

## V. 논 의

이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한국 대학생 가운데 학업지속자 및 중도탈락자의 특성과 학업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유의하게 밝혀냄으로써 대학이 중도탈락율을 줄이면서 학생을 보유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이 절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논의해보고,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대학생의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대학 학령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급박하고 중요하다. 대학은 생존을 위해 입학자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지만 이미 입학자원은 한계가 있다. 즉 대학 인구 구성을 성인학습자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이미 확보한 자원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제고해야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정태화외, 1990), 입학생이 감소하는 대학일수록 휴학생 및 제적생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 보유를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의 학생 보유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략

확립과 연관되어 추진될 때, 그 파급 효과가 크다.

대학이 학생을 보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대학에 따른 학업지속자와 중도탈락자의 특성 분석과 대학의 환경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기초가 될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대학이 그러한 분석과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보유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 대학생의 학업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연령, 거주지와 학교기관 소재지의 일치여부이다. 여대생, 비학령기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 그리고 거주지와 학교기관 소재지가 일치하여 자신의 집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일수록 학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남학생, 학령기 재학생, 그리고 거리상 통학이 불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중도탈락 확률이 높다.

이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대학진학율이 떨어지는 여학생을 입학자원으로 확보하고, 이들을 유지하는 것이 학생보유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외국의 경우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보유 비율에 대한 일치된 결과는 없다. 어떤 연구자는 여학생이, 또 다른 연구자는 남학생이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한다(Ohio University Office of Institutional Research, 2002).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남학생의 중도탈락이 군복무 휴학을 제외하더라도 여학생 중도탈락 비율보다 높은 특징을 나타낸다. 성별로 구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일치할수록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곧 남학생은 학령기에 해당할수록 그리고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불일치할수록 중도탈락을 고려한다. 이들은 중도탈락의 과정에서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남학생은 중도탈락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낙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목표 성취를 향한 매우 긍정적인 단계라고 인식한다. 중도탈락을 통하여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중도탈락생 대부분은 이전 대학을 더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임시 정거장 또는 군입대를 유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할 뿐이다(김수연, 2004a, 2004b). 따라서 한국의 남자대학생 중도탈락자의 경우는 해석에 매우 민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대생의 경우는 학업지속시 이 연구의 독립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의하면(Adres and Carpenter, 1997), 여대생은 학업지속에 있어서 개인요인보다 대학기관에의 사회적 통합, 특히 교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의 결과, 의미있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 대학환경과 대학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학업지속에 더 의미 있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최근 특히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비학령기 성인학습자의 입학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고교졸업 후 거의 곧바로 진학하는 학령기 학생들과는 다른 배경을 소유하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진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령기 학생들과 다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외국 연구(Adres and Carpenter, 1997; Hagedorn, 2003)의 결과에 의하면,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직접적으로 학업완성에 영향을 미치며, 비전통적인 학생인 성인학습자의 경우는 대학에

학문적으로, 특히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통합하는 경향이 높다. 다시 말해서, 학문적인 성취감과 만족도를 느끼지 못할 경우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개인이 기관의 공식적·비공식적 학문 체제 및 사회 체제에 대해 만족할 경우 체제에 대한 더 많은 통합으로 이끌지만 부정적 상호작용과 경험을 하게 되면 통합은 감소되고 기관의 학문·사회 체제와 멀어지게 된다(Pascarella & Terenzini, 1991; Penn, 1999; Raush, 2002).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비전통적 학생의 학업지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문적이고 사회적인 대학환경을 제고하는 보유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학령기의 학생들이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학령기의 학생들이 대학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대학환경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탈락의 심각성은 기관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령기 학생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학생보유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거주지와 학교기관의 소재지가 일치할수록 학업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통학을 하는가 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다. 통학생일 경우, 일치하는 학생이나 캠퍼스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캠퍼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학문적·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외 활동에 덜 참여하게 된다. Dietsche(1990)가 2년제 대학 3,817명의 통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학문적 통합과 교육적 수행이 사회적 통합과 기관의 수행보다 지속을 고려하는데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곧 주거지와 학교 기관 소재지가 일치 않는 경우 교수와의 개인적 상호작용보다는 교실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Adres and Carpenter, 1997 재인용). 곧 일치하지 않는 중도탈락자의 경우는 대학기관에의 학문적 통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학자 또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한 보유 전략은 교과외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보다는 교실내 분위기를 쇄신하고 제고하는데 달려 있다. 또한 교수들은 학생과 공식적·비공식적 접촉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학교에 머무는 시간동안 통합성을 높이고, 학교에 더 머물도록 함으로써 보유율을 높여야 한다.

거주지별로 학업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에서는 여학생일수록 학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 경기, 대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 도지역 학생들은 4년제 대학에 재학할수록 중도탈락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높아가는 청년실업률을 지켜보면서, 취업시 낮은 학력과 지방대학 졸업이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인식하고 실업을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한다. 전략 가운데 한 가지가 4년제 대학이나 위계가 높은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 재입학하여 학위를 획득함으로써 전문직에 진입하는 것이다. 2년제 전문대학생들은 준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만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탈락하기보다는 지속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 지역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들은 졸업후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학력을 더 높이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분석에서 대학기관 형태는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기관 형태별로 구분하여 대학생의 학업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2년제 전문대학 기관내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그리고 학령기보다 비학령기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곧 전문대학 학령기의 남학생이 중도탈락 확률이 높은 것이다. 4년제 대학 기관의 경우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일치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지속 여부에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학교기관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대학생의 학업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는 비학령기 학생일수록 학업을 지속하고, 4년제 대학에 다닐수록 중도탈락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외의 4년제 대학생들은 왜 중도탈락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의 이론적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다만 이들의 중도탈락이 청년 실업과 관련되어 졸업을 미루는 행위이거나 더 나은 안정적인 전문직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어학연수나 해외여행,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논의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에 대한 이 연구의 결과는 학업지속자와 중도탈락자의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대학이 개발할 학생 보유 프로그램의 이론적·경험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 연구의 자료는 패널조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를 설정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 대학생의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배경 변수, 대학특성별 환경 변수, 그리고 개인과 대학환경과의 상호작용 변수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학생보유의 방향을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학업지속은 외국의 학업지속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수의 설정과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남학생의 중도탈락 확률이 일관성있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 학령기 학생들의 진학비율이 높지만 그들의 중도탈락이 높은 확률, 그리고 서울이나 대도시보다는 지방 도지역에서 중도탈락이 높을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구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VI. 기대 효과

이 연구의 교육적 성과와 학문 및 사회발전에의 기대 효과를 크게 학문분야에의 기여, 대학에의 파급 효과, 사회발전에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문분야에의 기여

첫째, 학문 분야에서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학생 학업지속자 및 중도탈락자에 대한 중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경험적 방법을 적용, 실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한국형 모형을 제안하는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한국 대학생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학 및 국가 차원의 중도탈락자에

이론적·학문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2. 대학에의 파급 효과

첫째, 학업지속자 및 중도탈락자의 개인 특성별, 대학기관 특성별 보유 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대학이 학생 보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기초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궁극적으로 한국 대학의 안정적 운영 및 질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3. 사회발전에의 기대 효과

첫째, 입학 자원 감소와 중도탈락의 증가로 위기에 처한 일부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생 중도탈락자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경쟁력 확보와 국가의 대학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응 방안 개발에 공헌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 중도탈락의 특성과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학생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학생의 학문적·사회적 통합성 향상과 교육내실화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인적 자원 개발에 공헌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경석(1994). 「대학납입금과 장학금이 대학생의 학업지속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육행정학연구』, 12(2), 1-17.
- 교육부(2000). 「전문81211-245 재적생 변동상황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2004). 『인적자원정책수립과 홍보를 위한 주요 통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편).(1998). 『교육50년사(1948-1998)』. 교육부.
- 김계수(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PSS 아카데미.
- 김수연(1997). 「전문대학생의 교육포부와 편입학 계획 결정 과정」.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수연(1998a). 「전문대학생의 교육포부 수정과정」. 『교육학연구』, 36(1), 227-251.
- 김수연(1998b). 「전문대학생의 자퇴 및 휴학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8(2), 77-108.
- 김수연(2002).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student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n two-year college student attrition in Korea」.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연구』, 29(1), 123-148.
- 김수연(2004a). 「전문대학생의 교육포부 관련 변인 고찰」.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논문집』, 제5권 제2호, 277-290.
- 김수연(2004b). 「교육성취전락으로써 편입학 과정 탐색」,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17(1), 70-91.
- 김주섭, 이상준(2000). 『학력과잉과 노동시장 불균형 실태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정표외(2003). 『전환기의 직업교육체제 재정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수영, 박남기, 박부권의 1인(1997). 『대학정원 결정 방법론 연구』. 중앙교육심의회 고등교육분과.
- 정태화외(1990). 『전문대학의 입학생 감소 문제와 대응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태화(2002). 「미국에서의 전문대학 학생보유 연구에 관한 시사점 분석: 재학생 감소 시기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21(2), pp. 327-342.
- 한국노동연구원(2004a). 『한국노동패널 1~5차년도 조사 자료 User's Guide』.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2004b). 『한국노동패널 1~5차년도 조사 자료 Code Book』. 한국노동연구원.
- 한대동(1992). 「고등교육획득의 분화 및 계층화의 결정과정과 요인-1980년대 미국 고등학생들의 졸업 후 6년간의 교육획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1), 117-145.
- Alexander, K. L., M. Cook and E. L. McDill(1978). "Curriculum tracking and educational

- stratification: Some further evid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47-66.
- Ayalon, H. and E. Yuchtman-Yaar(1989).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A two-dimensional approach". *Sociology of Education*, 62(3), 208-219.
- Astin, A. W.(1991a). Assessing the environment. In *Assessment for excellence--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New York: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nd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81-93.
- Astin, A. W.(1991b). Assessment and equity. In *Assessment for excellence--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New York: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nd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4-215.
- Brint, S. and J. Karabel(1989). *The Diverted dream: Community colleges and the promise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America, 1900 ~198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lark, B. R.(1960). "The 'cooling-out' function in higher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5(6), 569-576.
- Dore, R.(1976). *The Diploma disease: Education,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eatherman, D. L. and R. M. Hauser(1976). "Sexual inequalities and socioeconomic achievement in the U. S., 1962-197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3), 462-483.
- Freeman, R. B.(1976). *The over-educated American*. New York: Academic Press.
- Hanson, S. L.(1994). "Lost talent: Unrealized educ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among U. S. youths". *Sociology of Education*, 67(3), 159-183.
- Jensen, E.(1981). "Student financial aid and persistence in colleg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2(1), 280-293.
- Karabel, J.(1972). "Community colleges and social stratification: Submerged class conflict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42(4), 521-562.
- Linda Serra Hagedorn, W. Maxwell, M. C. Pickett, H. S. Moon, P. Brocato, Community College Model of Student Life and Reten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ttp://www.usc.edu/dept/education/truccs>
- Lesley Andres, Susan Carpenter(1997). *Today's Higher Education Students: Issues of Admission, Retention, Transfer, and Attrition in Relation to Changing Student Demographics*.
- Ohio University Office of Institutional Research(2002). *Factors Associated with First-Year Student Attrition and Retention at Ohio University Athens Campus*.
- McClelland, K.(1990). "Cumulative disadvantage among the highly ambitious". *Sociology of Education*, 63(2), 102-121.
- Munro, B. H.(1981). "Dropouts from higher education: Path analysis of a national sample".

- American Educational Journal*, 18(2), 133-141.
- Pascarella, E. T. and D. W. Chapman(1983). "A multi-institutional, path analytic validation of Tinto's model of college withdrawa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1): 87-102.
- Pascarella, E. T. and P. T. Terenzini(1991).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San Francisco: Jossey-Bass.
- Pascarella, E. T., P. T. Terenzini and L. M. Wolfe(1986). "Orientation to college and freshman year persistence/withdrawal decision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7(2), 155-175.
- Penn, G(1999). Enrollment management for the 21st Century-Institutional goals, accountabil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SHE-ERIC Higher Education Report Volume*, 26(7).
- Pincus, F. L.(1980). "The false promises of community colleges: Class conflict and vocational educa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50(3), 332-361.
- Randour, M. L., G. L. Straburg and J. Lipman-Blumen(1982). "Women in higher education: Trends in enrollments and degrees earned". *Harvard Educational Review*, 52(2), 189-202.
- Raush, J. L.(2002). "Early attrition of new traditional freshmen". Paper presented at the 2003 AERA annual meeting in New Orleans.
- Rumberger, R. W.(1987). "The impact of surplus schooling on productivity and earning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2(1), 24-50.
- Sewell, W. H. and R. M. Hauser.(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In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New York: Academic Press.
- Tinto, V.(1987). *Leaving colle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into, V.(1992). "Student attrition and retention". In B. Clark. and G. R. Neave(eds.)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3, New York: Pergamon Press, 1697-1707.